

서구 나눔 모델 ‘천원국시’…국산밀 소비 해법 주목

지역 먹거리 정책서 ‘식량안보·소비 활성화’ 논의 출발점

aT, 우리밀 워크숍서 산업·정책 모색…전국 단위로 확장

광주 서구의 대표 나눔 브랜드인 ‘천원국시’가 국산밀 산업의 새로운 가능성을 비추는 상징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취약계층을 위한 한 그릇의 따뜻한 국수가 지역 먹거리 정책을 넘어 식량안보와 소비 활성화 논의의 출발점이 되면서, 국산밀을 둘러싼 산업·정책적 해법을 모색하는 전국 단위 논의로까지 확장되고 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최근

전남 화순 금호화순스파리조트에서 ‘제2회 전국 우리밀 워크숍’을 열고 국산밀 산업의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고 3일 밝혔다.

생산 기반을 안정화하는 동시에 소비 시장을 넓혀 지속 가능한 산업 구조를 만들자는 취지다.

이번 워크숍에는 전국 국산밀 생산농가 79명과 유관기관 관계자 13명 등 약 100명이 참석했다. 기후변화 심화와 식량안보 중요성 증대를 배경으로 국산밀 산업이 갖

는 전략적 의미를 공유하고 현장 중심의 해법을 모색하는 자리가 됐다.

행사에서는 기후변화 대응과 식량안보 실현 과제를 주제로 한 발표에 이어 농식품부의 제2차 밀산업육성 기본계획 추진 방향이 소개됐다. 생산·가공·유통 전 단계에서의 경쟁력 강화와 함께, 공공과 민간이 연계한 소비 확대 전략이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특히 지방정부 사례 발표에서는 광주 서구가 추진한 ‘천원국시’ 사업이 눈길을 끌었다. 국산밀로 만든 국수를 취약계층에게 1000원에 제공하는 이 사업은 복지 정책과 국산 농산물 소비 촉진을 결합한 모델로 평가받으며 참가자들의 관심을 모았다.

이와 함께 구미시의 지역 밀 소비 활성화 사업과, 경기도 급식지원센터 관계자가 참여한 단체급식 기반 국산밀 제품 활용 방안도 소개됐다. 학교·공공급식과 연계한 안정적 수요 창출이 국산밀 산업의 지속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공감대가 형성됐다.

aT 관계자는 “밀 시장이 안정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생산과 가공업계를 포함한 산업 전반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농식품부와 aT는 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국산밀 산업의 기반을 강화하고, 실용성 있는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나주=조현 기자 pose007@gwangnam.co.kr



광주 서구의 대표 나눔 브랜드인 ‘천원국시’가 국산밀 산업의 새로운 가능성을 비추는 상징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광주신세계, 힛트레디션 만나세요 최근 전통적인 상품을 재해석한 힛트레디션(‘힛하다’+‘전통’)이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광주신세계가 기존 스타일을 새롭게 해석하고 즐기는 MZ세대를 위한 관련 상품들을 마련했다.

한전, 광 태양광·ESS 전력사업 PF 5억달러 조달

〈에너지 저장 시스템〉

장기전력판매계약 기반…‘팀 코리아’ 모델 입증

한국전력공사(사장 김동철·사진)는 국내 기업들과 협력해 미국 광 지역에서 추진 중인 태양광·ESS(에너지 저장 시스템) 연계 재생에너지 전력사업과 관련, 총 5억달러(약 7000억원) 규모의 프로젝트파이낸스(PF) 계약을 성공적으로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국제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된 상황에서도 경쟁력 있는 조건의 자금 조달을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성과로 평가된다.

이번 PF는 모회사 상환보증 없이 현

지 사업법인의 사업성과와 장기 전력판

매계약(PPA)을 기반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구조로 추진됐다. 한국수출입은행을 중심으로 국제 상업은행이 참여한 대

주단이 구성되며 금융 안정성과 신뢰도를 동시에 확보했다. 해당 사업은 광 전력청(Guam Power Authority)이 발주한 전력 프로젝트로, 광 요나(Yona) 지역에 태양광 설비 132MW와 에너지저장장치(ESS) 84MW/325MWh 구축이 골자다.

재생에너지와 저장설비를 결합해 친환경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

이 핵심이다.

사업이 완료되면 연간 약 222GWh 규모의 전력 생산이 가능해져 광 지역 약 2만 가구의 연간 전력 수요를 충당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광 내 한전 주도 발전 설비 용량은 기존 258MW에서 390MW로 확대된다. 이는 광 전체 발전용량(708MW)의 약 55%에 해당한다.

이번 프로젝트는 지분 투자부터 설계·조달·시공(EPC), 운영·관리(O&M)까지 전 주기에 국내 기업이 참여하는 구조로 추진됐다.

재생에너지 전력사업 분야에서 ‘팀 코리아’ 협업 모델의 대표 사례로 평가받으며, 향후 북미 지역 유사 사업 수



주를 위한 교두보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동철 한전 사장은 “모회사 보증 없이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사

업성과 신뢰를 바탕으로 자금을 조달했다는 점에서 한전의 해외사업 역량과 리스크 관리 능력을 입증한 성과”라며 “태양광과 ESS 등 에너지 신사업을 중심으로 ‘팀 코리아’ 전력사업 모델을 해외 시장에 확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전은 이번 금융계약을 계기로 북미 지역 재생에너지 전력사업 포트폴리오를 지속 확대하고, 글로벌 에너지 전환과 해외 신사업 진출에 적극 나선다는 계획이다.

송대웅 기자 sdw0918@gwangnam.co.kr

광주 중소기업 ‘지식재산 강화’ 지원 추진

한국발명진흥회, 특허·디자인·브랜드 등에 초점

광주지역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한국발명진흥회 광주지부는 지식재산처와 광주시, 북구·서구의 지원을 받아 ‘2026년 지식재산 긴급지원 사업’ 수혜기업을 모집한다고 3일 밝혔다.

지식재산 긴급지원원은 특허·디자인·브랜드 등 IP 역량이 상대적으로 취약하고

전문 컨설팅 접근이 어려운 지방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현장 애로를 신속하게 해소하는 데 초점을 둔 사업이다. 기업이 당면한 기술 보호, 브랜드 구축, 출원 전략 수립 등의 문제를 단기간 내 해결하도록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수혜기업으로 선정될 경우 약 2~3개월간 전담 컨설턴트와 IP 전문 협력기관이

연계돼 지원에 나선다. 브랜드·디자인 개발을 비롯해 특허·디자인 맵 구축, 특허 기술 홍보영상 제작, 국내·해외 출원 등 기업 수요에 맞춘 세부 프로그램이 단계적으로 제공된다.

올해는 해외 출원 지원 범위를 확대해 글로벌 시장 진출을 준비하는 지역 기업의 IP 확보를 한층 강화했다. 지원 세부 내용과 신청 절차는 사업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박승민 한국발명진흥회 광주지부장은 “지식재산권 관리와 활용 역량이 취약한 지역 중소기업에 대상으로 특허·디자인·

브랜드 분야의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해 시장 경쟁력을 높이겠다”며 “현장 수요에 맞는 실질적 지원이 이뤄지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광주 지식재산 긴급지원 사업은 연간 3회 공고를 계획하고 있으며 기초자치단체별로 지원 범위에는 차이가 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지식재산센터 홈페이지(pms.ripcc.org)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업 문의와 지식재산 상담은 전문 컨설턴트(062-604-9241)를 통해 연중 상시 진행된다.

송대웅 기자 sdw0918@gwangnam.co.kr

[주]우성산업
Woosung Industrial Co., Ltd.
방음벽 설계 · 시공 전문업체

TEL : 061-334-1017 | FAX : 061-336-1017
주소 : 전남 나주시 배뱃1길 10, 5층 506호(빛가람동)